



SK C&C IT회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무료 IT교육센터 설립, PC도 기증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 각 단체에서 벌이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와 제품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예정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국제 표준인 ISO26000'이 도입되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기관들도 투자 및 기업평가 시 이를 중요한 지표로 사용할 전망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발전과 자원봉사 등 몇 개 부문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이해관계와 만족 전략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투자자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호는 지난호에 이어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로 SK C&C를 소개한다.

SK C&C(대표 윤석경)는 '행복을 함께 나누는 행복경영의 실천'을 모토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IT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과, '봉사단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원 봉사 활동', '함께 하는 사회공헌'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그 중 하나가 정보화지원사업인데, 회사 특성에 맞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서울시와 수원시 등에 1,500여대의 희망의 PC를 기증한 데 이어, 2006년 200대, 2007년 240대 등 성남시의 저소득가정 대학 신입생 및 초등생에게 '희망의 PC'를 각각 전달하고, '어름방학 IT 특강'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보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IT서비스업체로서의 특성을 활용, 회사 차원에서 IT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데 2004년 성남시에 제1차 무료 IT 교육센터를 건립한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웹디자인 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0월에는 일산 지역에 2차 장애인 무료 IT 교육센터를 건립, 장애인 IT전문인력

육성 및 자립 기반 구축 지원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이들 교육센터를 통해 2005년 40여 명과 2006년 60여 명 등 약 100여 명이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 및 닷넷 개발자, 웹디자인 등으로 취업에 성공해, 생활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2,700여 명의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23개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따뜻한 세상'이란 조직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SK C&C는 특히 좀 더 소외된 곳, 좀 더 낮은 곳을 찾아 임직원 뿐 아니라 임직원 가족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의 하나로 매년 방학 기간을 활용해 '가족 봉사 캠프' 등을 개최, 농촌문화체험·미니 올림픽·물놀이·바베큐파티 등 장애인과 임직원, 그리고 임직원 가족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23개 봉사단은 24개 기관과 결연하여 영유아와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찾아 PC교육, 작업미술 활동, 자연생태체험학습, 발마사지 등 대상자와 교감을 나누는 한편 공예·물품제작, 요리활동 등 다양한 자활·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장애아동 및 장애 가정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인식개선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SK C&C는 이 같은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5월 20일 뉴스메이커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